

설 명절 안전하고 행복하게

무주군,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 만전... 1마을 1담당 행정서비스도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설 연휴 종합대책 수립을 마무리한 무주군이 지난 9일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민생경제 및 생활안정, 안전, 교통, 복지, 환경, 의료 등 각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는 군청 내에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상황을 유지하며 갑작스러운 민원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종합상황실에서는 날마다 교통대책반과 재난재해, 쓰레기, 상하수도, 의료, AIB역 상황반 인원 12명이, 각 읍면 생활민원처리반에서는 19명이 근무를 한다.

12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황정수 군수는 "주민들을 비롯한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뛰어야 한다"라며 "연휴기간에는 특히 응급환자 발생이나 쓰러기 관리, 상하수도 대책 추진에 주력해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9일부터는 1마을 1담당 행정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1마을 1담당 행정서비스는 공무원들이 담당 마을을 찾아 주민 불편사항과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무주군 공무원들은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내용 등에 대해서도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의탁 독거노인을 비롯한

가정위탁 세대를 찾는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명절 나기에 정성을 쏟고 있으며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해 관내 곳곳을 청소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에는 무주(에서 고향을 찾은 출향인들에게 반딧불소식지와 관광안내책자 등을 배포하며 고향소식과 주요 관광지 홍보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공무원들은 "조금 더 바빠지는 했지만 기분 좋은 명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우리 주민들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내고 기분 좋은 한 해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주요시설 안전점검·특별 교통대책 등 종합대책 추진

장수군(군수 최용득)은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군은 이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주요 시설, 취약시설 및 교통시설, 도로점검 등을 통해 주요시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토 대청결운동을 실시해 안전하고 깨끗한 설 명절을 준비한다.

특히 설 명절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물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 원산지 단속과 설 성수품 수급 등 서민물가 안정에도 힘쓰고 특별 교통대책 상황실 운영하여 군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군청 내 6개반 비상근무 체계(종합상황반)를 유지해 각종 민

원인 물론, 재난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행정지원과 김덕남 과장은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고, 병원 진료와 약국 운영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의회 11개 읍·면 간담회 성료

건의사항 건설분야 35%, 농업·생활민원분야 각각 20% 차지

진안군의회(의장 박명석)가 지난 6일 정전면을 시작으로 실시한 2018년 진안군의회와 읍면간담회를 9일 성수면을 끝으로 마쳤다.

선거구별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각 읍면 이장단과 해당 선거구 진안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는 (가)선거구에서 정옥주 부의장, (나)선거구에서 박명석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작년 읍·면간담회에서 건의 받은 사항의 추진 현황을 되짚었다. 2017년 진안군의회의 의정활동 소개와 바로 이어 즉문즉답의 형식으로 각 읍면의 역점·현안사업과 새로운 건의사항에 대해 이장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이장과 군 의원 상호간의 생각

의 차이를 좁히고 군정의 발전적 방안을 주고받으며, 즉답이 힘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상의하겠다는 약속했다.

11개 읍·면간담회에서 중요 건의사항은 건설분야를 비롯하여 농업·생활민원분야 그리고 사회복지·관광분야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건설분야의 건의사항이 약 35%를 차지하였고, 농업·생활민원분야가 각각 20%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지난 진안군의회 회기 중 있었던 군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내용에 대한 질문과 추진현황을 묻는 날카로운 의견들도 있었으며, 용담호 질라인 설치와 같은 관광분야에서의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나왔다.

간담회 참석자는 "작년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들을 수 있어 우리의 의견 하나하나가 허투루가 아닌 성실히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편안하고 집중된 분위기에서 농·축업 종사자들의 애환과 고민부터 주민의 생활민원까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군 의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명석 의장은 "11개 읍·면마다 각각의 특징이 뚜렷한 건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날카롭고 예리한 이장들의 지적과 현지 주민만이 생각할 수 있는 기발한 지역발전 아이디어들을 들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의견들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에 무주 열기 보태

23일 바이애슬론 꿈나무들과 경기 관람도



문지희 선수

스키 점프 최서우(설천고 출신), 바이애슬론 문지희(무주고 출신), 고은정(안성고 출신), 루지 박진용(설천고 출신) 선수를 비롯해 스키점프 강철구 감독(설천고 출신) 등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5명을 배출한 무주군이 뜨거워지고 있는 올림픽에 열기를 보태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군청 민원실 입구에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한 것을 비롯해 관내 40개소에 D-Day캘린더도 설치해 운영 중이며 군청 앞 대형 전광판을 통해 홍보동영상도 송출하는 등 올림픽 붐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무주군 바이애슬론 꿈나무들과 지도자 등 45명과

함께 바이애슬론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다.

선수들은 "올림픽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이라며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꼭 국가대표로 이름을 알리고 무주군이 바이애슬론 강군이라는 것도 세계무대에 꼭 알리고 싶다"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 출신 선수들은 지난 8일부터 경기에 출전하고 있으며 14일에는 고은정, 문지희 선수가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15km에, 박진용 선수가 루지 더블 런에 출전한다.

16일과 17일에는 최서우 선수가 스키점프 라지힐 남자개인 예선과 1차 라운드에 출전할 예정이며 22일에는 바이애슬론 여자 계주에 고은정, 문지희 선수가 출전한다. 황정수 군수는 22일 평창을 찾아 출전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선수를 지원과 여건 조성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SS분무기 장기임대

장수군 농기계사업단(단장 서정원)에서는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기계사업단은 임대사업용으로 80종 62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기종(SS분무기)을 제외하고 단기 임대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SS분무기 3개 기종(케도형, 바퀴형, 캐빈형) 12대를 장기 임대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지난 1월4일부터 1월24일까지 받았으며, 2월 12일 현재 신청자 교육 및 대상자선정을 마쳤다. 임대기간은 3월~11월까지 영농기 9개월간이다. 신청자격은 장수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 과수원 재배면적 1만㎡이하의 SS기 미보유 농업인이 해당된다.

관내 과수재배 농가에서는 농기계 구입비용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기임대를 선호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농기계를 유지관리할 수 있어 인력, 시설 정비,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계팀 350-5317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숲가꾸기패트롤 운영 착수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산림현장 민원처리를 위한 2018년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을 9일부터 착수했다.

1개반 6명으로 구성되어,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숲가꾸기패트롤은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등 산림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현상민원(주거지 위험물 및 농경지 해가림목 등)을 처리한다.

지난해에는 민원업무 79건, 도로변 덩굴류제거 920m, 각종 위험목 등 제거 379본, 뚝갈 나무어주기 17가구(85㎡) 등 산림민원 처리와 주민생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호응을 얻었다.

한편, 숲가꾸기패트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주국유림관리소 경영지원팀(063-320-3647)으로 연락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안전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장수군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오는 3월 30일까지 안전신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주민들의 지역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전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올해 장수군 안전신고 목표 497건(장수군 인구의 1% + 면적의 50%) 중 199건을 이 기간 중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신고 우수자에게는 전북도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신고는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

이나 안전신문고 포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위험요인을 발견했을 때 사진을 찍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로나 보도블록 및 가로등·교통표지판 파손, 담벽 붕괴위험, 전기선 노출 등 화재위험 요인, 학교주변 불량식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험요소 신고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실행시킨 후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간단한 신고내용과 지도상의 위치를 입력하고 제출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마무리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용담향교 합동 화재 대응훈련

진안군은 12일 문화재방재의 날(매년 2월 10일)을 맞아 문화재 보호의 경각성을 높이기 위해 용담향교에서 유관기관 합동 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7호인 용담향교 대성전에서 실시된 이날 합동소방훈련에는 진안군청, (재)문화재이웃

리치연구소 문화재물품사업단, 무진장소방서, 진안H19안전센터, 용담향교 등 관계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화재 발생 상황에서 각자 임무와 역할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초기 진화에 성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 일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 국가대표 코치 역임
- 일본 신타쿠 국제대회 참가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취득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력 취득
-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